



여자 축구 아시안컵 첫 우승 도전 '순항'

어제 필리핀과 A조 조별리그 2차전서 3-0 승리 이란 꺾는데 이어 2연승... 8일 호주와 최종전

'신상우호'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필리핀을 꺾고 2연승으로 역대 첫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신상우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은 5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리핀과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란과 1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던 한국은 2차전에서도 골 폭풍을 이어가며 2연승을 내달려 8강 진출을 앞섰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와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국을 가린다.

준결승에 진출한 4개 팀과 8강 탈락한 팀들이 펼치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살아남은 2개 팀은 2027 브라질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차지한다.

원톱 스트라이커로 전유경(물대)이 나선 한국은 문은주에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기고 좌우 날개에 박수정(AC밀란)과 손화연(강진)을 배치한 4-2-3-1 전술을 가동했다.

이란과 1차전에서 답답한 결정력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과감한 중거리포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았다.

선제골은 전반 12분 만에 터졌고, 주인공은 전유경이었다.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김신지가

내준 패스를 박수정이 흘러주며 수비수를 속이자 불을 이어받은 전유경이 재빨리 돌아서서 왼발 슈팅으로 필리핀 골문을 열어젖혔다. A매치 3경기째 만에 터진 전유경의 데뷔골이었다.

추가골은 3분 뒤 터졌다. 전반 15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추효주가 불을 내주자 박수정이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기막힌 오른발 감아차기로 득점에 성공했다.

골키퍼가 가만히 서서 불의 궤적만 바라본 원더골이었고, 박수정은 A매치 4경기째 만에 데뷔골을 맛봤다.

전반을 2-0으로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 11분 켈리골을 쫓으며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김신지의 왼쪽 코너킥을 필리핀 골키퍼가 제대로 쳐내지 못하자 문은주가 골대 앞에서 재빨리 오른발로 차넣어 스코어를 3-0으로 벌렸다. 연합뉴스



5일 호주 골드코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A조 2차전 필리핀과 경기에서 박수정의 득점 후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지난 1일 0-0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와의 홈 개막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 FC 2026 시즌 '첫승' 도전 오는 8일 K리그1 FC안양 2라운드 원정

홈 개막전을 무승부로 마친 제주 SK FC가 원정경기에서 다시 시즌 첫승에 도전한다.

제주SK는 오는 8일 오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제주는 지난 1일 광주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중반 중원의 핵심 이탈로가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 0-0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1점을 확보했다.

제주SK는 안양과의 원정경기에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의 데뷔 첫승과 올 시즌 원정경기 첫승을 모두 거머쥘겠다는 생각이다.

제주는 지난 시즌 안양과의 경기에서 3승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올 시즌 전방 공격라인과 수비라인을 대폭 보강한 만큼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라운드에서 발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힌 네게바와 김윤성, 이창민, 신상은 등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광주전에서는 이탈로가 퇴장당하면서 수비에 치중, '주도하고 압도하는 축구'를 선언한 코스타 감독의 전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만큼 안양과의 경기에서 코스타 스타일이 제대로 발휘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함께 이날 경기에서 올 시즌 1호골이 터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에는 1라운드에서 김준하가 제주 SK 데뷔골이자 팀 1호골을 터뜨려 홈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제주SK는 안양과의 원정경기 이후 오는 15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이어 18일 울산(홈), 22일 강원(원정) 등과 맞붙는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 레슬링 이민호 '태극 마크' 달았다

그레코로만형 97kg급

레슬링 이민호(제주특별자치도청)가 2026국가대표로 선발돼 하반기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민호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97kg급에서 최종 1위에 올랐다. >> 사진

지난해 11월 태백에서 열린 1차 선발전에서 우승한 이민호는 올해 1월 2차 선발대회 입상자와 겨뤄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밖에 자유형 86kg급 서범규(제주특별자치도청)가 2위에 올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산체스, PBA 단일 시즌 최고상금 도전 6-15일 제주 월드챔피언십... 우승상금 2억원

프로당구(PBA)에서 2025-2026시즌 압도적 1강으로 활약한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웰컴저축은행)가 왕중왕전 석권과 함께 단일 시즌역대 최고 기록에 도전한다.

PBA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2025-2026시즌 왕중왕전인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월드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시즌 상금 랭킹 상위 32명만 출

전하며,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가장 시선을 끄는 선수는 올 시즌 9개 투어에서 우승 2회, 준우승 3회를 휩쓴 산체스다.

현재 상금 랭킹 1위(3억1550만원)인 산체스가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면,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이 보유한 단일 시즌 최고 상금(5억650만원)과 최고 포인트(52만1000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월드챔피언십

무대와 인연이 없었던 산체스는 7일 조건희(SK렌터카)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승리를 노린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방식이 '그룹 스위스 스테이지'로 개편됐다. 첫 경기 결과에 따라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며, 2승을 먼저 거두면 16강에 직행하고 2패를 안으면 탈락하는 방식이다.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태), 하비에르 팔라손(스페인·휴온스), 강동궁(SK렌터카), 김재근(크라운해태)이 묶인 E조는 이번 대회 최대 격전지인 '죽음의 조'로 꼽힌다. 연합뉴스



다니엘 산체스. PBA 제공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범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일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